

기술분석보고서 산업재

코나솔(176590)

작성기관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작성자 동윤정 선임연구원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525-775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코나솔(176590)

고강도 금속복합소재 기술 기반 반도체·에너지 분야로 확장 중

기업정보(2025.11.17. 기준)

대표자	이원혁, 황금철
설립일자	1997년 07월 05일
상장일자	2022년 06월 15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주요제품	압연롤, 가이드 롤러, HIP서비스 등

시세정보(2025.11.17. 기준)

현재가(원)	4,325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252
발행주식수(주)	5,823,333
52주 최고가(원)	9,000
52주 최저가(원)	4,100
외국인지분율(%)	-
주요주주(%)	
조영화	6.87%

■ 글로벌 철강 설비 부품 전문기업으로의 입지 확보

코나솔(이하 ‘동사’)은 고강도·내마모 금속복합소재에 특화된 철강 부품 제조기업으로, 포스코·현대제철(주)·동국제강(주)·대한제강(주)·세아그룹 등 국내 주요 철강사를 비롯해 다니엘리(Danieli), 프라이메탈(Primetals), SMS Meer 등 세계 3대 철강 설비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알로이틱(Alloytic)’ 브랜드의 가이드롤러를 글로벌 설비업체에 독점 납품하며, 인도·일본·미국·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 국내 선도적 수준의 분말야금·HIP 기술 보유

동사는 독자적인 분말야금 및 열간등방압 성형(HIP, Hot Isostatic Pressing) 기술을 기반으로, 고내마모·고강성 금속복합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금속 소재에 세라믹 강화재를 함유해 주조재료 대비 내마모성과 탄성계수를 개선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생산한 Alloy-TiC(Fe+TiC Powder)은 경쟁사 대비 우수한 내마모 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동사가 보유한 Canning HIP 기술은 분말이나 반제품을 금속 캔에 밀봉·탈기한 뒤 고온·고압으로 성형하는 방식으로, 내부 결함을 최소화하고 치밀도를 높이는 공정이다. 이를 통해 대형 압연롤을 단일 블록 구조로 제조할 수 있다.

■ 신사업 확장을 통한 성장 기반 구축

동사는 철강사업 기반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반도체용 스퍼터링 타겟의 이중접합기술을 보유하고 고순도 PVD(Physical Vapor Deposition) 제품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Al-MMC(알루미늄 금속복합재) 기반 중성자 흡수 플레이트를 프랑스 오라노(ORANO) 등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원전 소재 시장에 진입하였다.

요약 투자지표 (K-GAAP 개별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2	221	28.3	17	7.8	14	6.5	14.0	4.5	201.8	246	1,909	26.9	3.5
2023	174	-21.3	-26	-15.1	-28	-16.1	-20.4	-7.4	157.3	-472	2,466	N/A	3.0
2024	189	9.0	-33	-17.3	-33	-17.3	-22.2	-7.6	239.5	-495	1,991	N/A	3.4

기업경쟁력

국내외 주요 고객사 및 글로벌 납품망 확보	- 포스코, 현대제철(주), 동국제강(주), 대한제강(주), 세아그룹 등 국내 주요 철강사 및 미국·일본·이탈리아 등 글로벌 철강사 거래처로 확보 - 대형 HIP 설비(HIP 2호기) 국산화를 통한 대형 일체형 압연롤 생산 기술력 보유
전문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 인프라 보유	- 대전 중앙연구소: 금속복합소재 기술개발 전문조직 구성, 분말야금·HIP 공정 구현 환경 구축 - 순천 경량금속연구소: Al-MMC(알루미늄 금속복합재) 기반 중성자 흡수재 개발 - 당진 나노소재연구소: 면상발열체 및 나노물질 기반 윤활유 첨가제 개발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분말생산 및 금속복합소재 기술	- 수(水) 분무식 아토마이저 및 가스 아토마이저 공정을 통한 균일 입자 금속분말 생산 - 세라믹 강화재를 적용한 금속복합소재 제조로 내마모성 및 강성(탄성계수) 향상	
Canning HIP 공정	- 대형 HIP 설비(HIP 2호기) 국산화를 통한 대형 일체형 압연롤 제조 - 1,150°C·120MPa 조건 적용으로 입자성장 약 30% 억제 - 금속냉각시스템 적용을 통한 HIP-Heat Treatment 동시 처리	

시장경쟁력

핵심 금속복합소재 기술 및 생산체계 구축	- Alloy-TiC(Fe+TiC) 금속복합소재 개발(세계 3번째 상용화) - 분말합금강 및 분말고속도강 생산 역량 확보 - 원소재(특수분말)부터 제조공정(HIP)·가공·조립·완제품까지 일관생산 체계 구축
다각화된 사업구조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장	- 금속복합소재(분말야금) 제조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 분야 사업 확장 - 미국 마테리온(MATERION)과 스퍼터링 타겟 분야 전략적 협력 의향서(LOI) 체결 - 프랑스 오라노(ORANO)와 중성자 흡수 플레이트 공급계약 체결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글로벌 시장 내 친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이슈화되는 각종 규제/신기술 요구에 맞춰 여러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윤활유의 저점도화를 통해 연비 상승을 도모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 ◎ 제조공장 내 안전 환경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체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등 환경경영 수행
S 사회책임경영	◎ IR 활동이 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있고, 지속적인 기업설명회(IR자료) 개최를 통해 투자관계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 ◎ KOTRA 글로벌 브랜드 인증서 획득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서의 면모
G 기업지배구조	◎ 이사회 운영규정 및 주요 내용을 일반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 내 정기보고서 등에 주요 의결사항 및 활동내역 등을 첨부하여 공개하고 있음.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보고서 외 필요한 사항(공시사항,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등)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최근 결산 기준 거버넌스 관련 위배사항에 해당되는 항목 없음.

I. 기업 현황

고강도 금속복합소재 기반의 차세대 철강부품 전문기업

동사는 고강도·내마모 금속복합소재 전문기업으로, 티타늄 카바이드(TiC) 합금강 소재를 국산화하였으며, 분말부터 완제품까지 아우르는 One-Stop 제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주력 제품인 철강산업용 압연롤을 중심으로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 회사의 개요

동사는 1990년 2월 개인기업 ‘명준산업’으로 설립되어 1997년 7월 (주)알로이텍으로 법인 전환하였으며, 2007년 12월 (주)대화알로이테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후 2019년 4월 (주)디에이티신소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22년 3월 현재의 상호인 (주)코나솔로 변경하였다. 같은 해 6월 코넥스(KONEX)에 상장하였다.

동사는 철강산업용 압연롤 및 설비 부품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티타늄 카바이드(TiC) 합금강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분말 제조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일관(One-Stop)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고강도·내마모 금속복합소재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압연롤(Rolling Roll), 가이드롤러(Guide Roller), 이송롤(Delivery Roll) 등 철강 생산설비의 핵심 부품으로, 포스코·현대제철(주)·동국제강(주) 등 국내 주요 철강사와 다니엘리(Danieli), 프라이메탈(Primetals), SMS Meer 등 글로벌 설비업체에도 공급하고 있다.

최근 동사는 금속복합소재 기반 기술을 확장하여 반도체, 모빌리티, 에너지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용 스퍼터링 타겟(Sputtering Target), 전기차용 면상발열체(Film Heater), 원자력용 중성자 흡수재(Neutron Absorber) 등 고부가 신소재를 개발 및 양산 중이며, 이를 통해 기존 철강 중심의 매출 구조에서 기술집약형 소재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표 1. 동사 주요 연혁

일자	연혁 내용
1990.02.	명준산업 설립
1997.07.	(주)알로이텍 법인전환
2001.1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07.12.	(주)대화정공 인수합병, (주)대화알로이테크 사명변경
2009.09.	나노연구소 설립(나노렉스 개발)
2019.04.	(주)디에이티신소재 사명변경
2020.06.	(주)한국남동발전 개발선택품 인증서 획득
2020.0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나노산업발전)
2020.10.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선정
2021.10.	국무총리상 수상(기계로봇항공 발전)
2021.12.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2.03.	(주)코나솔 사명변경
2022.06.	코넥스 상장
2024.07.	고성능 대형 HIP 설비 도입 및 국산화 검증 완료

자료: 사업보고서(2024.12.), 기업현황보고서(2025.06.),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코나솔(176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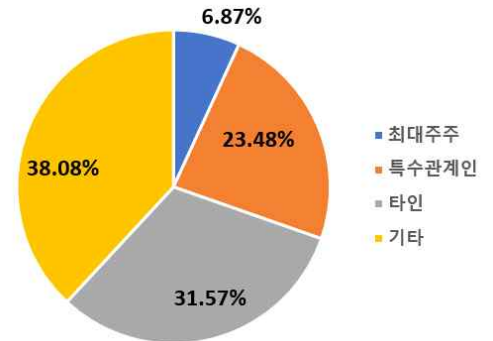
2025년 반기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조영화로 지분 6.87%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조은혜 외 5인의 지분을 포함하면 총 23.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강윤근 외 6인(18.85%), 조해도 외 7인(12.72%)이 주요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동사는 30% 이상의 안정적인 특수관계인 지분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영권 안정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표 2. 동사 지분구조 현황

주주명	관계	보통수(주)	지분율(%)
조영화	최대주주	400,000	6.87%
조은혜 외 5인	특수관계인	1,367,331	23.48%
강윤근 외 6인	타인	1,097,875	18.85%
조해도 외 7인	타인	740,492	12.72%
기타	기타	2,217,635	38.08%
합계		5,823,333	100.00%

자료: 기업현황보고서(2025.06.), KIND,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그림 1. 동사 지분구조 현황



자료: 동사 기업현황보고서(2025.06.), KIND

■ 대표이사

동사는 이원혁 · 황금철 각자대표이사 체제를 통해 기술개발과 사업운영 전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원혁 각자대표이사는 한양대학교에서 재료공학 학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금속복합소재 분야의 전문가로, 럭키소재(주)와 LG전자 연구소 등 국내 주요 기업 · 연구기관에서 선임 및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1997년부터 동사의 부사장 및 연구소장으로 약 27년간 금속복합소재 생산 및 개발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25년 4월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기술 중심의 경영체제를 이끌고 있다.

황금철 각자대표이사는 아주대학교에서 재료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94년 (주)세아FS 연구원을 거쳐 1995년부터 동사의 철강사업부 부사장으로 약 29년간 근무하였다. 철강 및 나노복합소재, 금속소재 개발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현장 중심의 영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각자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사업운영 및 영업전략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 주요 사업 분야

동사의 주요 사업은 철강사업부문, 반도체사업부문, 모빌리티사업부문, 에너지사업부문으로 구분된다.

철강사업부문은 동사의 핵심 사업 영역으로, 고강도 · 내마모 금속복합소재 분야에 특화된 철강 부품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동사는 국내 최초로 티타늄 카바이드(TiC) 합금강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분말 생산부터 완제품 제작까지 일관(One-Stop) 생산 체계를 구축하였다. 2024년 5월부터 Gas Atomizing 장비를 도입하여 기존 수입에 의존하던 티타늄 카바이드 합금분말의 자체 양산 체계를 확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압연롤 · 가이드롤러 · 이송롤 등 철강 생산설비용 핵심 부품을 분말야금(PM) 및 HIP 공법으로 제조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내마모성과 고온 안정성이 우수하여 국내 주요 철강사뿐 아니라 세계 3대 철강설비업체에도 공급되고 있으며, 특히 Alloytic(알로이틱) 가이드롤러는 글로벌 설비업체에 독점 납품되며 인도,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향후 동사는 ‘Hi-Max 시리즈’ 등 고성능 제품군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글로벌 수요 확대에 대응할 계획이다.

반도체사업부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고성능 스퍼터링 타겟(Sputtering Target)을 제조하고 있다. 동사는 순수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스퍼터링 타겟 분야에 진입하여 기술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HIP 설비를 활용해 2012년 이후 불량률 제로(0%)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주요 반도체 제조사로부터 생산 및 품질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지, PCB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모빌리티사업부문은 윤활유 첨가제와 면상발열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윤활유 첨가제는 나노다이아몬드 기반 입자 개질 기술을 통해 마찰 저감과 동력 효율 향상을 실현하는 핵심 소재로, 동사는 'Nano-Rex' 브랜드로 시장에 진출하여 B2B 및 B2C 채널에서 안정적 매출 기반을 확보하였다. 또한 발전소 및 전기차 트랙션 모터용 나노유체 개발에도 성공하였다. 면상발열체는 CNT 기반 고내열 발열 페이스트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발열 소재로, 높은 에너지 효율과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 전기차 내장재용 히터 개발이 진행 중이며, 향후 스마트팜·건축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에너지사업부문은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저장을 위한 중성자 흡수재 개발 및 생산을 핵심으로 한다. 동사는 알루미늄 금속복합재(Al-MMC) 기반 중성자 흡수재의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유일 기업으로, 대량 양산 설비를 구축하여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의 국산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원자력 발전 확대와 함께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부문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부문별 매출실적

동사의 2024년 매출은 약 189억 원으로, 전년(174억 원) 대비 약 9.0% 증가하였다. 사업부문별로는 철강사업부문 144억 원, 반도체사업부문 30억 원, 모빌리티사업부문 15억 원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2022년 기준 전체 매출의 약 93% 이상을 차지하던 철강사업부문 비중은 2024년 76.0% 수준으로 하락하며 매출 구조의 다변화가 진행되었다. 반면 반도체사업부문 매출 비중은 2024년 15.7%로 급등하여 동사의 새로운 핵심 사업으로 부상하였으며, 모빌리티사업부문은 내수 중심의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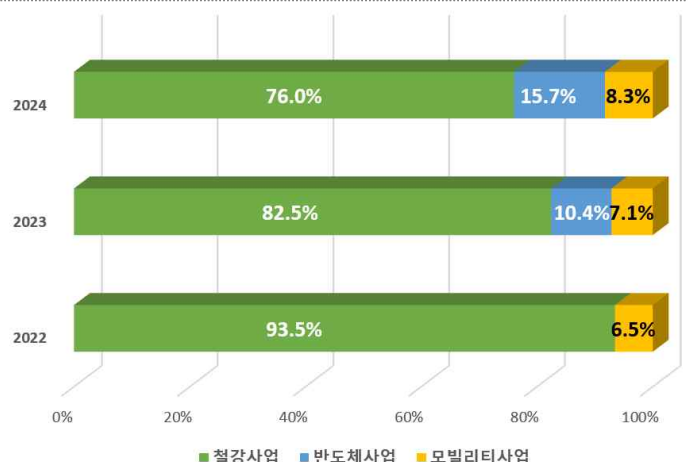
표 3. 사업부문별 매출실적 (단위: 억 원, K-GAAP 개별 기준)

부문	품목	2022	2023	2024
철강사업	내수	90	64	74
	수출	116	80	70
반도체사업	내수	-	18	27
	수출	-	-	3
모빌리티사업	내수	15	12	15
	수출	-	-	0.2
합계	내수	105	94	116
	수출	116	80	73
	계	221	174	189

자료: 사업보고서(2024.12.), 한국기술신용평가㈜ 재구성

그림 2. 사업부문별 매출구성

(단위: %)



자료: 사업보고서(2024.12.), 한국기술신용평가㈜ 재구성

II. 시장 동향

국내 철강 수요 둔화와 중국·미국 중심의 글로벌 수급 재편

국내 철강산업은 명목소비량이 2024년 47.1백만 톤으로 하락하였으며, 자동차·건설 경기 둔화와 가전의 해외 생산 확대에 따라 내수 수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철강사의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의 생산 및 수출 확대로 공급 과잉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미국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철강 수요가 완만히 증가할 전망이다.

■ 국내 철강수요 둔화와 글로벌 공급 과잉 구조 심화

철강산업은 제조업 전반의 기반이 되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 경기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국내 철강산업은 2008년 강재 명목소비량¹⁾이 58.6백만 톤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에는 47.1백만 톤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2025년에는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소비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전방산업인 자동차·건설 분야의 생산과 투자가 2023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가전용 철강의 해외 생산이 확대되면서 국내 철강수요는 지속적인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철강사의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또한 동반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표 4. 국내 주요 철강회사 성장성 변화

(단위: %)

회사명	구분	2024	2023	2022
포스코 홀딩스(주)	매출액 증가율	37.35	-83.07	-78.48
	영업이익 증가율	44.26	-33.93	-74.81
현대제철(주)	매출액 증가율	-13.84	-8.69	18.38
	영업이익 증가율	-97.70	-55.60	-36.31
대한제강(주)	매출액 증가율	-16.67	-25.55	11.93
	영업이익 증가율	-85.69	-47.20	17.46

자료: NICE BizLINE, 한국기술신용평가 재구성

글로벌 철강시장 역시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철강협회(Worldsteel)에 따르면 글로벌 철강수요는 2021년 18.44억 톤을 기록한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강재 수요는 9억 톤 이하로 감소한 반면, 생산량은 약 10억 톤 수준을 유지하며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내수 둔화를 수출 확대를 통해 보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의 수출량도 2020년 6백만 톤에서 2025년 14.7백만 톤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 철강사의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트럼프 2.0 행정부 출범과 함께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철강산업에는 단기적으로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미국 내 대규모 인프라 확충과 제조설비 투자 확대에 따라 철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중국 견제 기조로 인해 중국산 철강 수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조선·건설 등 국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철강의 대미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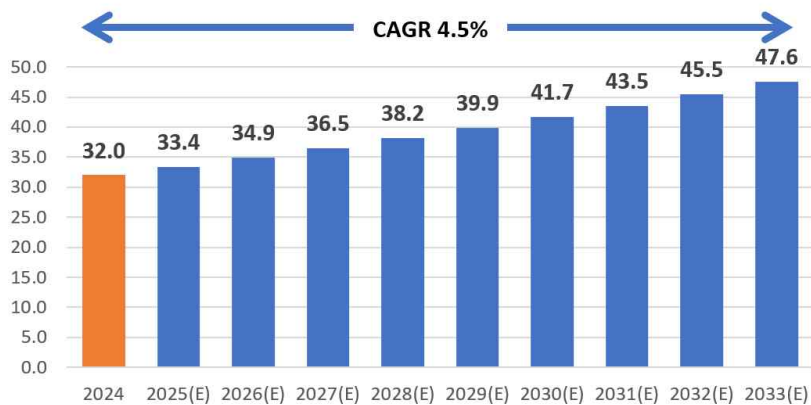
1) 명목소비량: 현재의 가격으로 측정한 소비량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량 * 공급(국내에 공급되는 물량)을 말한다.

■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압연롤 수요 지속 성장

글로벌 압연롤 시장은 철강산업의 생산설비 확충 및 고성능 소재 수요 확대에 따라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Market Research Intellect(2025)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압연롤 시장 규모는 32억 달러로 평가되며, 2033년에는 47.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CAGR)은 4.5%로, 안정적인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대규모 인프라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철강 생산량 및 압연설비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글로벌 압연롤 수요 확산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글로벌 압연롤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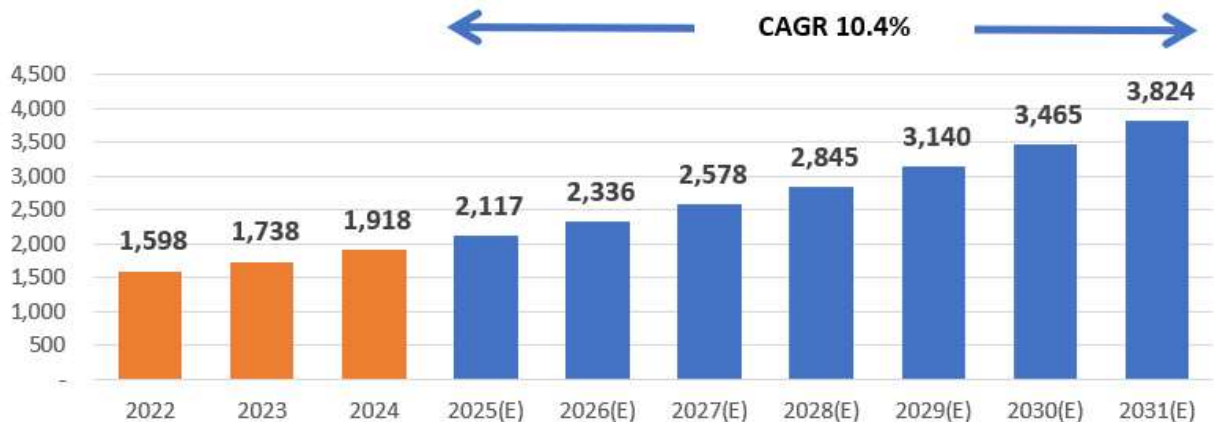
자료: Market Research Intellect(2025),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가공

국내 시장 또한 유사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에 따르면, 국내 압연롤 품목의 출하금액은 2019년 1,172억 원에서 2023년 1,738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동일한 성장추세(CAGR 10.36%)를 가정할 경우, 2031년에는 3,824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압연롤 제조의 핵심 소재 기술인 분말야금(Powder Metallurgy) 시장 역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분말야금 시장은 2020년 3,258억 원에서 2023년 4,35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5,544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CAGR 9.26%). 이러한 성장세는 고내열·고강도 소재의 수요 확대와 더불어, 정밀 금속소재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4. 국내 압연롤 시장 규모

(단위: 억 원)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가공

■ 국내외 고내열·내마모 압연롤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 구도

동사는 고강도·내마모 금속복합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주요 철강사에 압연롤 및 설비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외 선도 기업들과 품질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대제철(주)이 대표적인 경쟁사로, 자체 롤숍을 운영하며 열연·냉연·후판·HSS(High Speed Steel) 롤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 대형 열처리·가공·검사 체계를 갖추어 사내 라인에 공급하고 있으며, 라인별 규격에 맞춘 대형 압연롤의 일괄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주)세타텍은 금속 3D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고내마모·내열 복합소재 및 정밀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분말야금 및 HIP(열간등방압 성형) 분야에서 특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압연롤의 소재 및 특수공정 파트너로서 강점을 확보하고 있다.

해외 경쟁사로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본사를 둔 Union Electric Steel이 대표적이다. 해당 기업은 미국·영국·유럽·아시아 등 글로벌 거점에서 고급 단조·주조 압연롤을 생산하며,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 전반에 공급하고 있다. HSS 및 합금강 롤을 중심으로 고온강도와 내마모성을 강화한 고급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맞춤형 설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Proterial, Ltd.(구 Hitachi Metals)는 특수강, 자성소재, 전자·자동차 부품, 산업기계용 압연롤 등을 제조하는 글로벌 소재기업이다. 대표 제품인 HINEX™ 시리즈는 고내열·고강도 특성을 지녀 세계 주요 철강사의 열연·냉연 라인에 납품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재기술 혁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압연롤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표 5. 주요 경쟁업체 현황

기업명	소재지	주요 사업 내용 및 특징
현대제철(주)	충남 당진	- 열연·후판·봉형강 설비용 압연롤(HSS 포함) 자체 생산·공급 - 국내 유일 중대형 롤 생산, 세계일류상품(HSS 롤) 보유, 글로벌 70여 개사 공급 등 국내를 대표하는 철강회사
(주)세타텍	충북 청주	- 금속 3D프린팅(PBF, Powder Bed Fusion/DED, Directed Energy Deposition), 분말 사출성형(PIM, Powder Injection Molding), 분말야금(P/M, Powder Metallurgy), CIP(Cold Isostatic Pressing)·HIP(Hot Isostatic Pressing), 분말단조 등 금속 성형 전 공정을 보유한 정밀부품·고기능성 소재 제조사 - 스텐-구리, Ti, Ni계 등 난가공 소재 대응이 강점이 있음
Union Electric Steel (Ampco-Pittsburgh FCEP)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 세계적 롤 메이커. Ampco-Pittsburgh의 FCEP(Forged and Cast Engineered Products) 부문이 미국·영국·스웨덴·슬로베니아 등에서 단조·주조 롤을 공급 - 2024년 FCEP 내 'forged & cast mill rolls' 매출 2.73억 달러
Proterial, Ltd. (구 Hitachi Metals)	일본 도쿄	- HINEX™ 등 강재 압연용 롤의 글로벌 브랜드 보유 - 특수강·자성재료 등과 함께 'Rolls' 사업 전개

자료: 각 사 사업보고서 및 홈페이지,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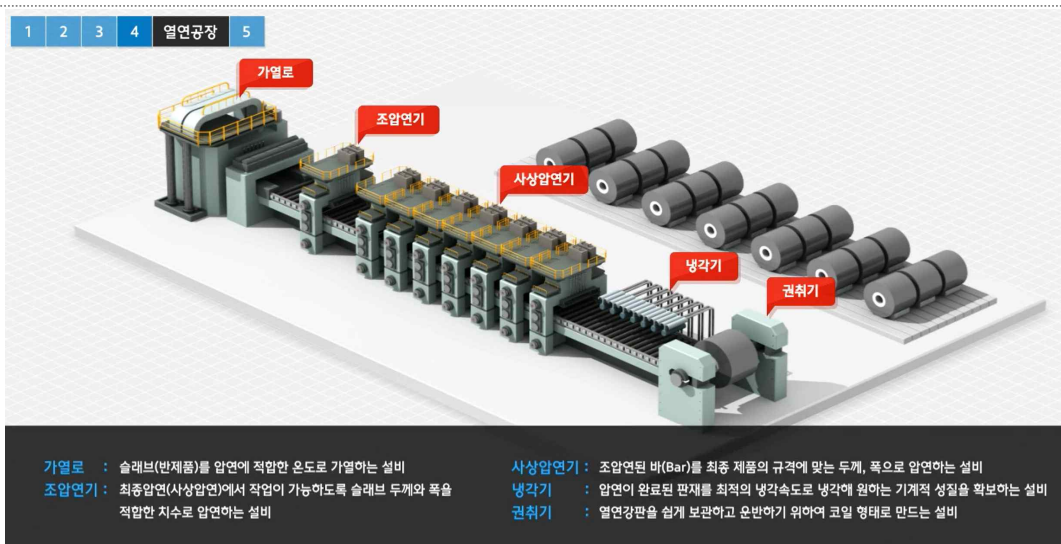
금속복합소재 기반의 공정 내재화 및 응용 기술 확장

동사는 티타늄 카바이드(TiC) 합금강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분말부터 완제품까지 생산 가능한 One-Stop 제조체계를 구축하였다. 분말야금(PM) 및 Canning HIP 공정을 기반으로 대형 압연롤과 고성능 스퍼터링 타겟을 생산하고 있으며, 내마모성이 우수한 Alloy-TiC 등 금속복합소재를 개발하였다. 또한 나노유화 윤활유 첨가제 등 친환경·고기능 소재 기술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철강에서 반도체·모빌리티 분야로 기술 응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 압연롤: 제철소 압연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

동사는 제철공정의 핵심설비인 압연기에 사용되는 압연롤을 주력 제품으로 공급하고 있다. 압연기는 슬래브(slab), 블룸(bloom), 빌릿(billet) 등 반제품을 두 개 이상의 롤(roll) 사이에 통과시켜 두께를 줄이고 폭을 넓히는 장비로, 철강 제품의 두께 정밀도와 표면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공정이다. 최근에는 유압갭제어(HGC, Hydraulic Gap Control), 자동두께제어(AGC, Automatic Gauge Control), 평탄도제어(AFC, Automatic Flatness Control) 등이 결합된 스마트 압연기로 진화하며, 고강도강·전기강판·자동차용 강판 등 고부가 제품 생산의 기반이 되고 있다. 압연롤은 이러한 압연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고합금·복합소재 표면층과 인성이 높은 내부재를 결합하여 고온·고하중 환경에서 발생하는 마모와 열피로를 동시에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5. 압연기 및 열연 제조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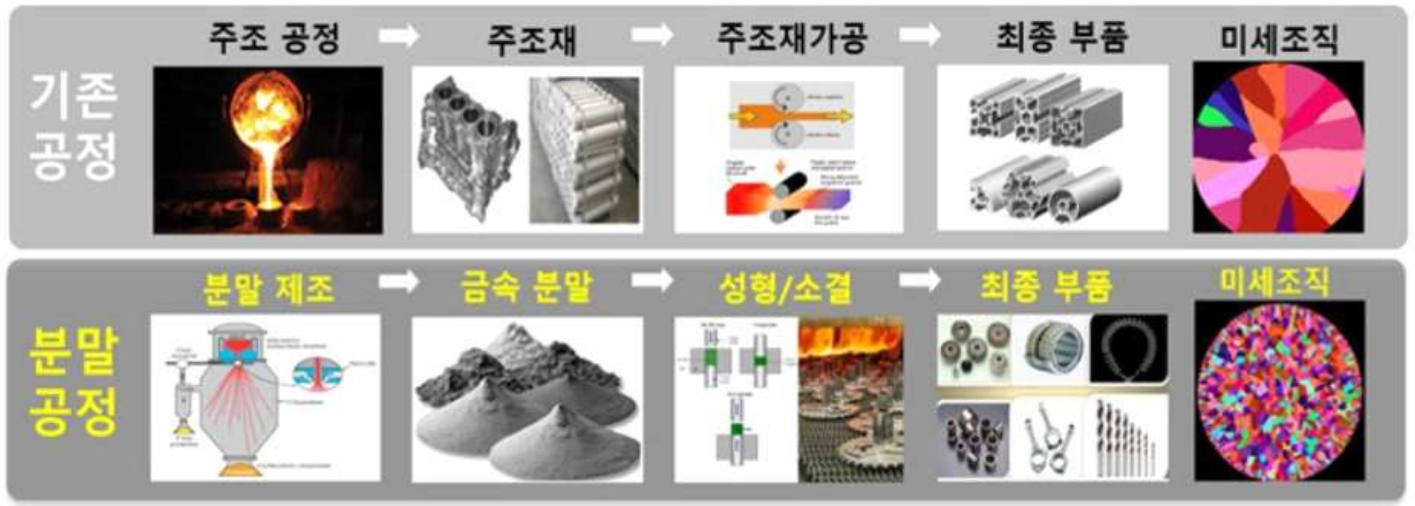


자료: 현대제철㈜ 홈페이지(열연 제조공정_ <https://www.hyundai-steel.com/kr/product-tech/hot-rolled>)

초기 압연롤은 주강·주철 기반 단일 소재로 제작되어 제작이 용이했으나, 열피로와 마모에 취약해 수명 저하와 생산성 감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내구성 향상을 위해 고속강계 합금설계(HSS, High Speed Steel), 분말야금(PM) 및 열간등방압 성형(HIP, Hot Isostatic Press) 공법이 도입되었다. HSS는 C, Cr, Mo, W, V 등의 합금을 포함하여 고온에서도 경도를 유지하며, 열연 압연 환경에서 마찰과 마모를 최소화한다. 그러나 HSS 합금을 주조 방식으로 제조할 경우, 원소 간 밀도 차이로 미세기공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말야금 공정이 필수적이다.

분말야금 공정은 금속을 미세 입자 형태로 제조하여 균일한 조직을 확보하는 기술로, 주로 가스 아토마이징(Gas Atomizing) 방식이 사용된다. 이는 용융 금속을 고압가스로 분사하여 미세한 구형 분말로 응고시키는 방식으로, 입도와 조성의 균일성이 뛰어나 고품질 합금 제조에 적합하다. 제조된 분말은 이후 HIP 공정을 통해 밀도를 향상시키며, 잔류기공과 계면 결함을 제거하여 소재의 신뢰성을 높인다.

그림 6. 주조공정과 분말소재공정 차이점



자료: 국립공주대학교 첨단분말소재부품센터 홈페이지(<https://camp2.kongju.ac.kr/M02099/12661/subview.do>)

HIP 공정은 고온·고압의 등방압을 부품 전체에 균일하게 가하여 내부 기공을 제거하고 밀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가열 온도는 약 1,050~1,150℃로 금속의 녹는점보다 낮게 설정되며, 불활성가스를 이용해 약 200MPa의 압력을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가한다. 이 과정을 통해 소재의 변형 없이 고밀도 합금 구조가 형성되며, 합금의 계면 강도와 미세조직의 균질도가 향상된다. 이를 통해 제조된 압연물은 기존 주조형 대비 내마모성과 내열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수명은 약 10~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합금강 소재의 국산화: 분말야금 기반 One-Stop 제조체계 확보

동사는 고강도·내마모 금속복합소재에 특화된 철강 부품 제조기업으로, 티타늄 카바이드(TiC) 합금강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분말부터 완제품까지 아우르는 One-Stop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24년 5월부터 가스 아토마이저(Gas Atomizer) 장비를 가동하여 수입에 의존하던 티타늄 카바이드 합금분말 소재를 자체 생산·양산하고 있으며, 분말야금(PM)과 열간등방압 성형(HIP) 공법을 적용해 철강 생산설비용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동사는 분말 제조 및 HIP 공법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Ti64-ODS, Ti6242+ODS, Steel Alloy(STS·High Speed Steel), Cu/Cu Alloy, Ni Alloy 등 다양한 합금분말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EIGA(Electrode Induction Gas Atomizer), 가스 아토마이저, 수 아토마이저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플라즈마 아토마이저와 VIGA(Vacuum Induction Gas Atomizer) 등 최신 분사장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코나솔(176590)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동사는 독자적인 금속기지 복합(MMC, Metal Matrix Composite) 소재 제조 기술을 확보하였다. 금속기지(Metal Matrix)에 세라믹계 강화상을 함유한 합금은 일반 주조재료 대비 내마모성과 강성이 현저히 개선된 특성을 지닌다. 특히, 동사가 국내 최초(세계 3번째)로 개발한 Alloy-TiC(Fe+TiC Powder) 소재는 일본 Fujico사의 KFC705 대비 우수한 내마모 성능을 확보하며, 철강 설비용 고내마모 부품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림 7. 수입분말 대비 코나솔 개발 분말 성능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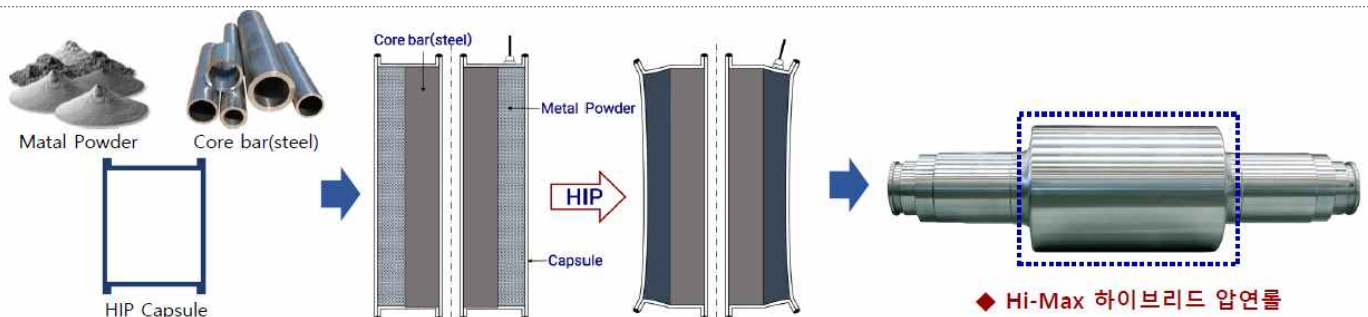
자료: 동사 기업설명회(IR) 개최결과_dart(2025.10)

■ HIP 설비 경쟁력: 대형 압연롤 대응을 위한 고압·고온 시스템 확보

동사는 2024년 국내 최대 규모의 HIP(Hot Isostatic Pressing) 2호기를 도입하여, 대형 압연롤 및 고강도 금속소재 생산 역량을 강화하였다. 신규 설비는 기존 HIP의 1,350℃·98MPa 조건 대비 1,600℃에서 최대 200MPa까지 압력을 인가할 수 있어, 입자 성장(Grain 및 탄화물)을 약 30% 억제할 수 있다. 또한 급속냉각(Rapid Cooling) 시스템을 갖추어 HIP-Heat Treatment 동시처리가 가능하며, 공정시간 단축과 균질조직 확보 측면에서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있다.

동사는 자체적인 Canning HIP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Canning HIP은 분말 또는 반제품을 금속 캔(Can) 용기에 밀봉한 후, 진공 또는 탈기 상태에서 HIP 처리를 수행하는 공정으로, 내부 기공을 수축·폐쇄시키고 소재 내부의 원자 확산(diffusion) 및 계면 결합(bonding)을 촉진한다. 이 기술은 복합소재의 내부 결함을 제거·최소화하여 소재의 밀도 및 결합력을 향상시키며, 동사는 이를 활용해 대형 압연롤을 기존의 조립식 구조에서 단일 블록 구조로 일체 성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였다.

그림 8. Canning HIP 공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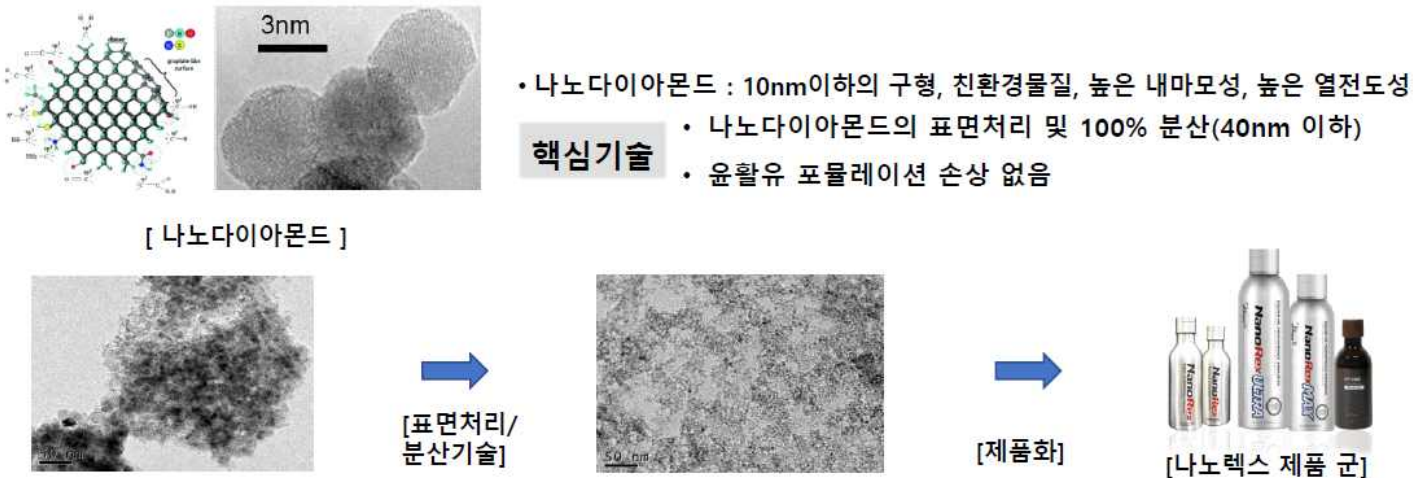


자료: 동사 기업설명회(IR) 개최결과_dart(2025.10)

■ 기술 다각화: 반도체 타겟 및 나노유화 유회기술로 확장

동사는 철강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및 첨단소재 분야로 기술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반도체사업부문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미세전자기계시스템), IT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고성능 스퍼터링 타겟(Sputtering Target)을 개발하고 있다. 스퍼터링 타겟은 PVD(Physical Vapor Deposition) 공정에 사용되는 고순도 합금 원판으로, 하나의 블록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동사는 자체 보유한 Canning HIP 기술을 적용해 원판 내부의 기공 및 불순물을 최소화하고, 막의 균질도와 밀착력을 개선한 고품질 타겟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철강사업에서 축적한 조강기술과 고온·고압 공정기술을 접목하여, 수입에 의존하던 고부가 PVD 타겟 소재의 국산화 및 대체 수요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9. 유회성능향상제 기술 개요



자료: 동사 기업설명회(IR) 개최결과_dart(202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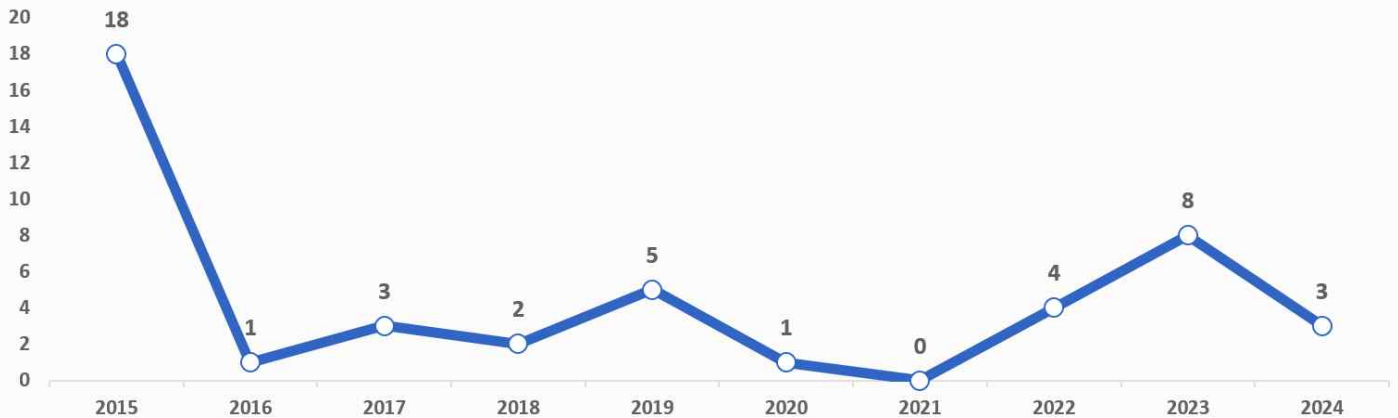
아울러, 산업 고도화 및 친환경 기술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나노유화 유회유 첨가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동사의 유회성능향상제는 나노탄소결정체가 사슬형 유회유 분자의 말단을 연결해 분자 간 결합을 지지함으로써, 고하중·고온 환경에서도 유막 단절을 방지한다. 이 기술은 실린더·피스톤 등 마찰 부위에서 두꺼운 유회막을 형성해 마찰을 감소시키고, 온도 상승을 억제하여 엔진오일과 엔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나노 기반 유회 기술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산업설비 등 다양한 동력 구동장치의 효율과 내구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허 활동 동향

KIPRIS(2025.11.11.)에 따르면, 당사는 총 61건의 특허를 출원, 45건이 등록(매입 5건 포함)되었다. 최근 10년 기준으로는 48건의 특허를 출원, 34건이 등록되었다.

출원 개수

(단위: 개)



자료: KIPRIS(2025.11.11.), 당사 제공 자료

기술부문별 특허동향

당사가 현재 보유한 특허의 IPC코드를 통해 파악한 주요 기술부문은 [용접], [윤활재] 등으로 파악된다. (단, 기술부문별 최대 5건씩만 표시하였다.)

■ [B23K] 용접

특허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일
1020240074560	열간등방가압(HIP:Hot Isostatic Pressing) 공정에 의한 탄탈륨 타겟 플레이트와 동합금 백킹 플레이트와의 확산접합 방법과 이를 활용한 스퍼터링 타겟	2024-06-07
1020230030703	마찰교반 용접용 용접 툴	2023-03-08

■ [C10M] 윤활재

특허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일
1020230125413	전기자동차용 윤활유 조성물	2023-09-20
1020230084120	윤활유 첨가제	2023-06-29
1020230084299	컴프레서용 윤활유 조성물	2023-06-29
1020220164543	전기자동차용 윤활유 조성물	2022-11-30
1020220089072	윤활유 조성물	2022-07-19

용어 정의

- 출원 특허: 특허를 받기 위해 심사를 요청한 상태
- 등록 특허: 심사를 통과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특허
- 유효 특허: 현재 기준으로 유효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등록 특허
- IPC: 발명의 기술분야를 나타내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분류체계

기술특허 빅데이터 분석(워드 클라우드)

워드 클라우드는 평가대상업체의 핵심 기술분야에서 특히 기술 키워드 변동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분석 결과이다.

대상 기술분야의 최근 20년간의 특허 정보를 10년 단위로 비교하여 과거 대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기술분야 내 키워드 수가 많을수록 키워드의 크기가 크게 나타난다.

2005년 ~ 2014년



2015년 ~ 2024년



IV. 재무분석

매출 성장세 회복했으나, 신사업 투자와 고정비 부담으로 수익성 저조

동사는 철강 중심에서 반도체·모빌리티 등 신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9.0% 증가한 189억 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신사업 초기 투자와 고정비 부담이 지속되면서 2024년 영업이익률은 -17.3%로 적자가 이어졌고, 부채비율 상승 등 단기 재무부담이 가중되었다. 다만 고부가 소재 매출 확대와 설비 효율화로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되며,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회복과 재무 안정화가 기대된다.

■ 신사업 확대로 매출 회복세, 반도체, 모빌리티 사업부문이 성장의 핵심 동력

동사의 매출은 2022년 221억 원에서 2023년 1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3%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는 189억 원으로 9.0% 증가하며 성장세로 전환하였다. 사업부문별로는 철강사업부문이 0.6% 증가에 그친 반면, 반도체사업부문은 64.0%, 모빌리티사업부문은 26.2% 증가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하였다. 특히 반도체용 스퍼터링 타겟과 전기차용 면상발열체, 윤활유 첨가제의 내수 판매가 확대되며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구축하였다. 2025년 반기 기준 매출액은 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시장 회복 지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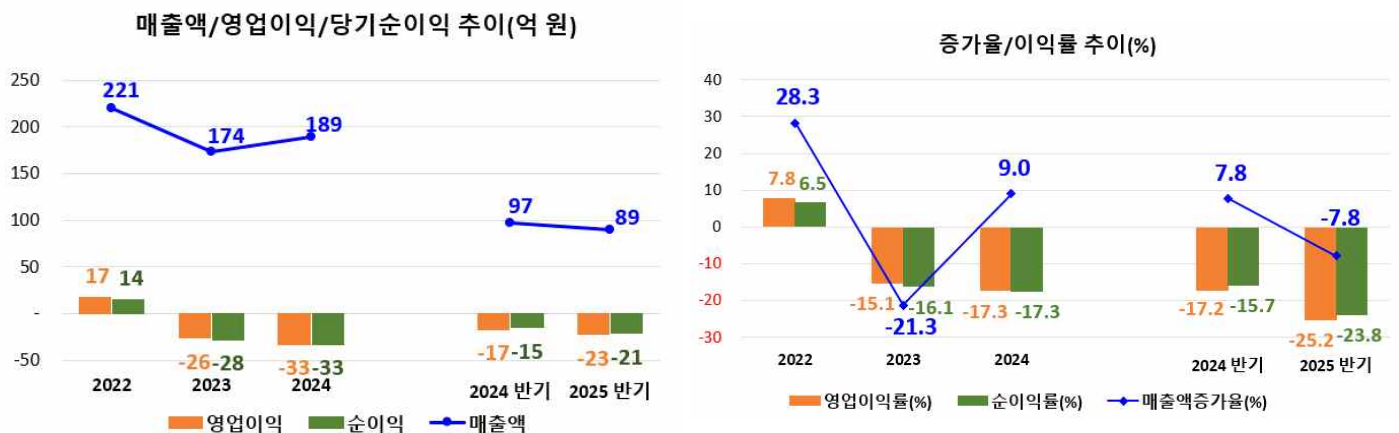
■ 신사업 확장에 따른 단기 수익성 부담 심화

동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26억 원에서 2024년 -33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되었으며, 영업이익률은 -15.1%에서 -17.3%로 하락하였다. 순이익 또한 2023년 -28억 원에서 2024년 -33억 원으로 적자가 이어졌으며, 이는 신사업 초기 투자와 고정비 부담, 수출 비중 감소에 따른 환율효과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률은 -25.2%로 추가 악화되었으며, 반도체·모빌리티 등 신사업 부문의 초기 투자 단계가 지속되어 단기적 수익 기여도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반도체 및 에너지 부문 등 고부가 소재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0.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GAAP 개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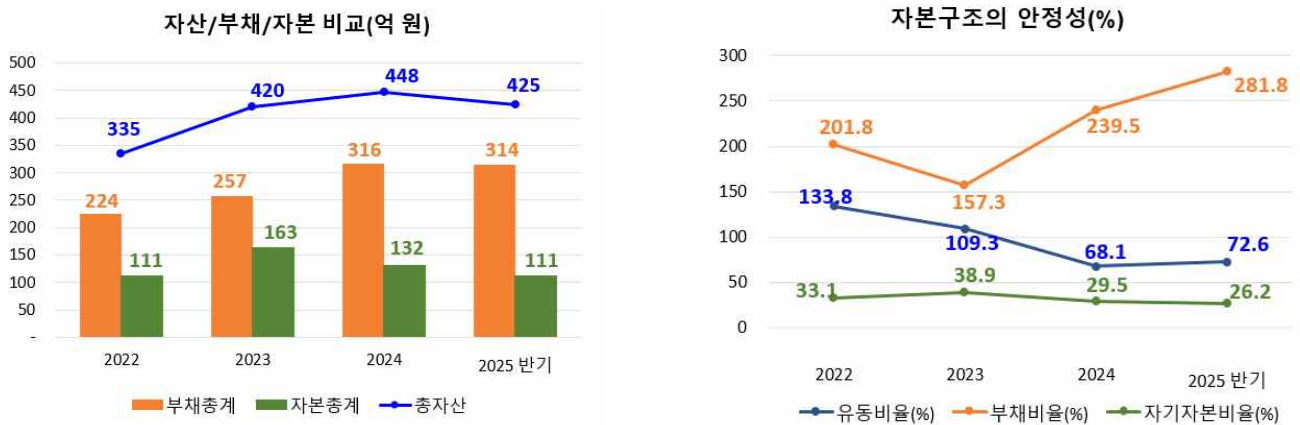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동사 기업현황보고서(2025.06.),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 차입 확대와 유동성 저하로 재무안정성 부담 가중

2024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239.5%로 전년(157.3%) 대비 상승하였으며, 유동비율은 109.3%에서 68.1%로 하락하여 단기 유동성 부담이 확대되었다. 총부채는 3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3.0% 증가한 반면, 자본총계는 2023년 163억 원에서 2024년 132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은 38.9%에서 29.5%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재무지표 악화는 영업 손실 누적과 운전자금 부담, 신사업 투자 확대에 따른 차입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은 281.8%, 유동비율은 72.6%, 자기자본비율은 26.2%를 기록하며 여전히 재무안정성은 미흡한 수준이다. 다만, 반도체·에너지 등 고부가 사업부문의 매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수익 기반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여지가 존재한다.

그림 11.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K-GAAP 개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동사 기업현황보고서(2025.06.),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표 6.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GAAP 개별 기준)

항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반기	2025년 반기
매출액	221	174	189	97	89
매출액증가율(%)	28.3	-21.3	9.0	7.8	-7.8
영업이익	17	-26	-33	-17	-23
영업이익률(%)	7.8	-15.1	-17.3	-17.2	-25.2
순이익	14	-28	-33	-15	-21
순이익률(%)	6.5	-16.1	-17.3	-15.7	-23.8
부채총계	224	257	316	278	314
자본총계	111	163	132	149	111
총자산	335	420	448	427	425
유동비율(%)	133.8	109.3	68.1	89.8	72.6
부채비율(%)	201.8	157.3	239.5	186.6	281.8
자기자본비율(%)	33.1	38.9	29.5	34.9	26.2
영업활동현금흐름	5	-45	-45	-37	-12
투자활동현금흐름	-46	-32	-32	-24	-13
재무활동현금흐름	15	116	49	18	-7
기말의현금	41	80	53	38	21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동사 기업현황보고서(2025.06.),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동사 실적 전망

2025년 동사의 매출은 약 190억 원 수준으로 전년과 유사할 전망이다. 철강사업부문은 대형 HIP 설비를 기반으로 한 생산 효율화와 고성능 압연롤 수요 확대에 따라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된다. 반도체사업부문은 스퍼터링 타겟 양산 안정화 및 신규 고객사 확보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내 주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로의 납품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모빌리티사업부문은 전기차·친환경 윤활유 시장 성장에 따라 매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에너지사업부문은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에 힘입어 중성자 흡수재의 양산을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다.

동사의 현금흐름은 신사업 투자비 집행으로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있으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반도체 및 에너지 부문의 매출 확대에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다. CAPEX(설비투자)는 HIP 2호기 증설과 관련한 주요 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향후에는 유지보수성 투자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감가상각비 안정화와 차입금 상환 여력 확대에 재무구조의 점진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사업은 향후 10년간 누적 매출 1,200억 원 이상이 기대되는 신규 성장 동력으로, 과거의 실적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2. 연간 실적 전망 (단위: 억 원, K-GAAP 개별 기준)

표 7. 사업부문별 실적 전망 (단위: 억 원, K-GAAP 개별 기준)



항목	2022	2023	2024	2025(E)
매출액	221	174	189	190
철강사업	206	143	144	140
반도체사업	-	18	30	35
모빌리티사업	15	13	15	15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동사 기업현황보고서(2025.06.),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글로벌 협력과 신사업 확대로 성장 기반 강화

동사는 철강사업에서 축적한 소재 기술력을 기반으로 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25년 6월에는 미국 마테리온(MATERION)과 스퍼터링 타겟 관련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 진출을 강화하였고, 2022년에는 프랑스 오라노(ORANO)와 중성자 흡수 플레이트 공급계약을 맺어 원전 소재 시장에 진입하였다. 최근에는 CNT 기반 면상발열체를 개발해 전기차 및 스마트팜용 히터 사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신사업 분야의 협력관계 확대

동사는 2025년 6월 미국의 반도체 소재 기업 마테리온(MATERION)과 전략적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력은 동사의 스퍼터링 타겟 생산설비 일부를 마테리온에 이전하고, 마테리온의 고순도 타겟 제품에는 동사의 HIP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동사가 보유한 핵심 공정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용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22년 9월에는 프랑스의 원전기업 오라노(ORANO)와 중성자 흡수 플레이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에너지 사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동사는 AI-MMC(알루미늄 금속복합재) 기반 중성자 흡수재를 국산화한 국내 유일 기업으로, 본 계약을 통해 글로벌 원전 소재 시장에 본격 진입하였다. 향후 프랑스·미국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며, 에너지사업은 철강사업과 함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13. 코나솔-마테리온 전략적 협력의향서 체결

자료: 예결뉴스(<https://ygdata.kr>)

그림 14. 코나솔-오라노 공급계약 체결

자료: 뉴스토마토(<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49407>)

한편, 동사는 CNT 기반 고내열 발열 페이스트와 저전력 고속 발열 구현 기술을 활용한 면상발열체를 개발하여, 2025년부터 동파방지 및 스마트팜용 필름히터 매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의 난방 시 배터리 효율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효율 발열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종용 내장 히터 공급 제안을 진행 중이다.

코나솔(17659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	-	-	-
투자의견 없음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5.11.10.)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코나솔	X	X	X